



동일화보

2호 주체101(2012)년
(호 외)

쫓아죽이려
괴명박

모국의
전구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시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론평 《무자비하게 짓밟기버릴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 곳이 없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우리의 가슴아픈 애도기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감행되는 리명박역적패당과 남강도 미제의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보복일념은 하늘끝에 닿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리명박역적패당은 또다시 천주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꺼리낌없이 저지르고있다.

그것이 바로 다치면 터질듯 한 전쟁전야의 정세를 조성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괴뢰군부대들에서 벌리고있는 우리 최고존엄에 대한 로골적인 중상모독행위이다.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있는 괴뢰군부대의 내무반에서만도 벽체와 문짝들에 감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어놓고 그 아래우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빼적이 써붙이는 천하무도한 망탕짓을 벌려놓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무분별한 이 모든 중상모독행위는 오직 리명박역적패당만이 벌릴수 있는 반민족적인 히스테리적광기이며 나라의 정세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막다른 지경으로 몰아가는 무지한 강패집단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역적패당의 중상모독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괴뢰륙해공군부대들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공기표적》

사건, 괴뢰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써붙이거나 내다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현수막》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행위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우리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만고대역죄는 우리 최고존엄을 가장 엄중히 모독한 악행중의 악행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러한 특대형도발행위를 리명박역도가 직접 고안해내고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과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승조를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그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앞장서 벌리고있다는데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구름이 밀려들고있는 때에 역적패당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반민족적, 반공화국대결망동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더이상 그대로 둘수 없는 극단의 도발로 비상사건화하지 않을수 없다.

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사건에 대한 소식에 접한 백두산 혁명강군의 륜해공군장병들은 《명박이를 쳐죽이라.》, 《군부호전광들을 때려잡자.》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명령만 내려주기를 고대하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도 벌어진 사태를 두고 《모두의 가슴을 섬찍하게 만드는 분별없는 행위》, 《원색적인 동족대결음모》, 《전쟁을 회귀시키는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규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반영하여 이미 내외에 천명한대로 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우리 식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다.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썩가 바로 리명박역적패당이며 오직 총대로 쓸어버려야 할 반역의 무리가 다름아닌 괴뢰군부호전광들이다.

물리적다격을 기본으로 한 우리 식 성전은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모든 행위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리명박역도와 군부호전광들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지은 대역죄를 민족앞에 사죄할 때까지 중단없이 벌리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민족공동의 존엄과 명예로 간주하고있으며 그가 누구든

털끝만큼이라도 그것을 모독중상하거나 훼손하려고 달려든다면 가차없이 짓밟개버릴것이다.

지난 북남관계사가 아무리 복잡다단했어도 리명박역적패당에 의하여 지금처럼 극도의 대결상태가 조장되고 전쟁위험이 도래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있는 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죽어 너부러질 때가 다가올수록 더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미친개의 본성 그대로이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이글거리는 보복일념으로 만장약된 우리의 총대는 역적패당이 다시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지 못하도록 마지막 한놈까지 깡그리 소탕해버리게 될것이다.

세계는 자기 수령, 자기 제도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성전앞에 특대형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 곳이 없다.

주체 101(2012)년 3월 2일
평양



△역적패당에 대한 솟구치는 분노와 멸적의 보복의지에 넘쳐있는 평양시군민대회 참가자들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리명박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할 의지로 만장약된 인민군군인들



시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령을 내렸다
백두의 자손들아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정의의 총창을 비껴들라
역적패당을 청산할 때가 왔다
결산의 포문을 열라

조선민족은커녕
인간명단에도 없는 쓰레기들
감히 리명박따위들이
반만년민족의 존엄 되찾고 빛내여주신
백두래양을 중상모독하다니
어찌 그냥 두랴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하늘이여 번개를 던져
역적패당 대갈통에 불소나기 퍼부으라
땅이여 용암을 뿜어
청와대를 송두리채 재더미로 만들라

송장만도 못한 이런 놈들때문에
민족의 운명이 유린당한다
인륜도 모르는 이런 패륜아들때문에
백두의 자손들이 치욕당한다

백두산이 노호한다
한시인들 용서하라
조국과 민족도 모르는 매국노들
리명박역적패당 더이상 살려두면
삼천리의 하늘과 땅에 불구름인다

더는 용서 못한다
이 땅, 이 하늘아래서
역적패당 더는 살아숨쉴 곳 없다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백두산총대가 격발기를 당겼다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자
백두래양 해발아래
강군의 힘 백배로 다지고다진
백두의 자손들아
멸적의 방아쇠당기라

세상에 존엄높은 백두래양
리끌만큼이라도 중상모독한자들
한놈도 살려두지 말라!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리명박역적패당 깨끗이 청산하고
조선민족의 숙원을 풀자!

리 송일

무지비히게 짓뭇개버릴것이다

최근 리명박역적패당은 대국상을 당한 우리 민족앞에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미친개마냥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러한 특대형도발행위가 리명박역도가 직접 고안해내고 피뢰국방부 장관 김관진과 피뢰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승조를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그것을 《국정파제》로 내세우고 앞장서 벌리고있다는데 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역적패당의 중상모독행위는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피뢰륙해공군부대들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공기표적》사건, 피뢰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써붙이거나 내다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현수막》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행위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우리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만고대역죄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가장 엄중히 모독한 악행중의 악행이다.

그런데 이번에 반공화국대결광기가 골수에 들어찬 리명박패당이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다치면 터질듯한 팽팽한 정세하에서 또다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망동을 저지른것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려고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이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날쳐도 너무 썸판이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리명박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도발을 무자비하게 짓뭇개버릴 멸적의 기세로 끓어번지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의 이번 특대형도발사건을 폭로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이 나가자 우리의 천만군민은 끝없이 솟구치는 격분에 치를 떨면서 《당장 인천에 들어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자들을 모조리 칼탕쳐죽이자!》, 《서울에 달려가 리명박새끼부터 쳐죽이자!》,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불바다로 만들자!》고 분노와 복수의 고향을 터치면서 역적무리들을 징벌할 명령만 내리기를 고대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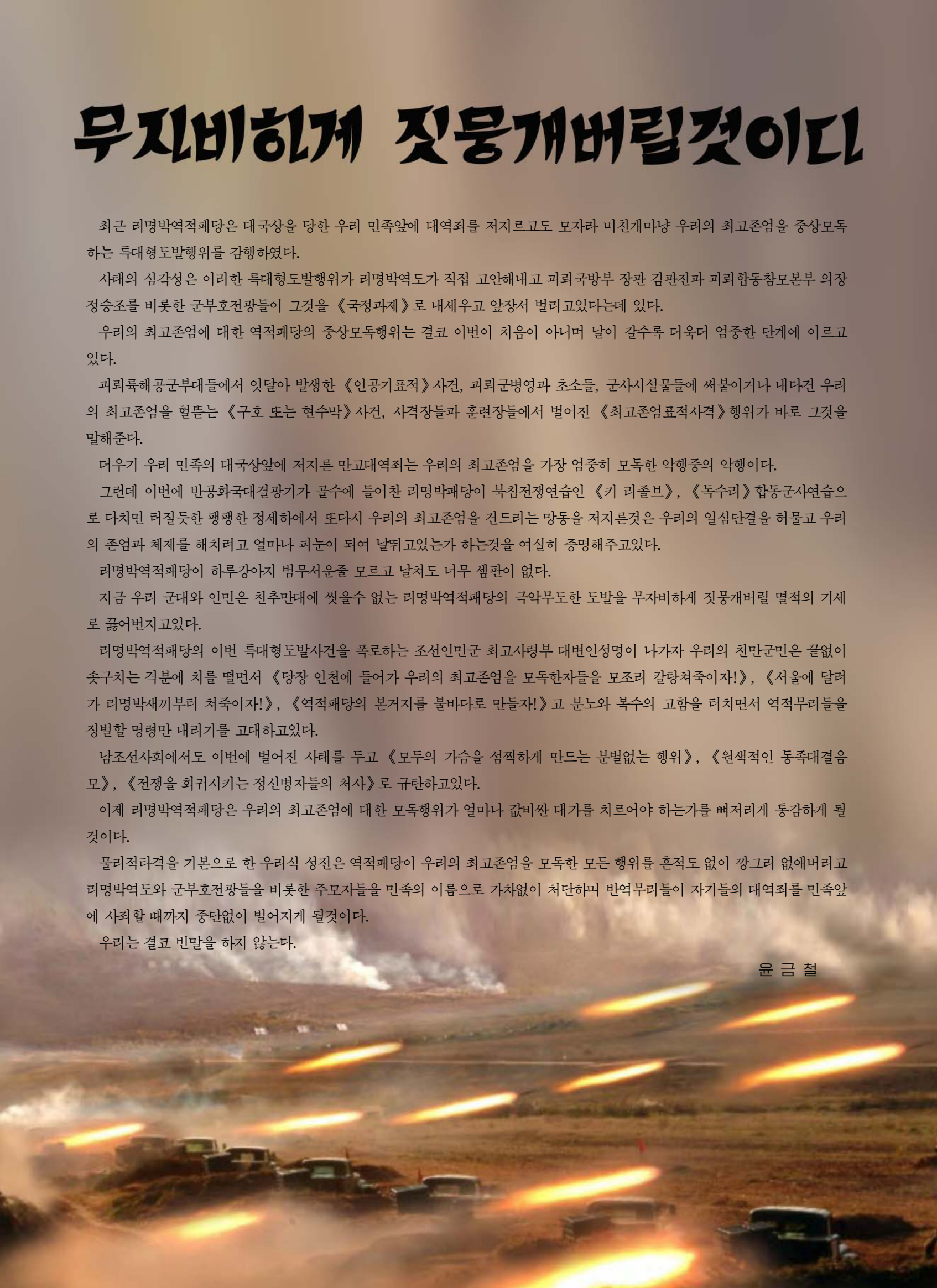
남조선사회에서도 이번에 벌어진 사태를 두고 《모두의 가슴을 섬찍하게 만드는 분별없는 행위》, 《원색적인 동족대결음모》, 《전쟁을 회귀시키는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규탄하고있다.

이제 리명박역적패당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행위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다.

물리적타격을 기본으로 한 우리식 성전은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모든 행위를 흔적도 없이 깡그리 없애버리고 리명박역도와 군부호전광들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처단하며 반역무리들이 자기들의 대역죄를 민족앞에 사죄할 때까지 중단없이 벌어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윤 금 철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철사옹위하자!